

# LUX HUMANITAS

VOL. 14. 2013

KYUNG HEE UNIVERSITY NEWSLETTER

##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 SPECIAL REPORT

- 02 미원 조영식 박사 1주기
- 03 교육철학 · 사회사상 · 평화정신 구체화 방안 논의
- 04 학술과 평화, 경희는 무엇을 기릴 것인가
- 05 '경희 100년' 구상한 미래비전

### FOCUS

- 06 경희의 학술세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 08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09 "치유와 공명, 배움의 길"
- 11 성금캠페인 통합기구 '경희미래위원회' 발족
- 12 '학술진흥 2020' 위한 맞춤형 연구지원제도
- 13 정년연장교원 4명 첫 선정
- 14 연구지원제도의 확대, 탁월한 연구 성과로 결실
- 16 GSC 봉사단, KOICA 국제개발협력사업 전개

### TODAY

- 17 '환대의 축전' 2013학년도 입학식
- 18 '경희문학 60년' 전통 계승한 국문학과 3인
- 19 영문 홈페이지, 웹어워드코리아 대상 수상
- 20 조리과학과 선후배, '김치버스' 타고 세계일주

### PEOPLE

- 21 경희 인물 동정

### NEWS

- 22 경희 단신

Lux HUMANITAS 룩스 후마니타스

라틴어로 '인류애를 향한 빛'을 뜻하는 말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는 경희의 창학이념을 상징합니다.



ISSN 2005-716X

KYUNG HEE UNIVERSITY

# 미원 조영식 박사 1주기 전통 계승, 미래 창조의 길

2013년 2월 18일,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1주기를 맞아 경희 구성원은 추모식과 함께 고인의 뜻을 계승·발전시킬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조영식 박사는 '교육의 선구자, 실천적 사상가, 평화의 창조자'로서 치열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경희를 학술과 평화의 전당으로 발전시키고, 교육·연구·실천이 창의적으로 결합된 경희학풍을 확립했다. 1981년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을 제안하며 평화와 공영의 지구사회공동체 건설에 앞장섰다. 조영식 박사의 생애는 곧 '문화세계 창조'의 역사였다. 경희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고등교육을 통해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비전과 미션은 조영식 박사가 미래세대 앞에 던져준 영원한 화두다. 경희는 조영식 박사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경희 100년'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계획이다.



# 교육철학·사회사상·평화정신 구체화 방안 논의

2월 18일, 서거 1주기 계기로 추모 원탁회의 개최  
조영식 박사의 뜻 계승·발전시킬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할 계획



경희의 창학이념 '문화세계의 창조'가 새겨진 교시탑.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다.

지난 2월 18일은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서거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경희대학교 조인원 총장을 비롯한 유가족, 경희학원 이사진, 교직원 등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선영에 안장된 고인의 묘소를 찾아 추모식을 거행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캠퍼스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조영식 박사 1주기 추모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조영식 박사는 문화세계 창조를 꿈꾸었던 '교육의 선구자',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선 '실천적 사상가', 세계평화의 길을 제시한 '평화의 창조자'로서 평생 동안 치열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다. 1921년 11월 22일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난 조영식 박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잠시 정치계에 몸을 담았으나 30세 때인 1951년 피난지 부산에서 신홍초급대학을 인수하면서 교육자의 길에 들어섰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이념(교시) 아래 교육·연구·실천이 창의적으로 결합된 경희학풍을 확립하고 경희를 학술과 평화의 전당으로 성장시켰다.

## 교육·연구·실천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한 뜻 기려

조영식 박사는 대학의 기본 사명인 교육과 연구의 탁월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농촌계몽운동, 문맹

퇴치운동, 산림녹화운동을 펼쳤다. 1965년 제창한 범국민적 잘살기운동은 새마을운동의 모태가 됐다.

1981년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서 열린 제6차 세계대학총장회(IAUP)에서 조영식 박사는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최초로 제안했다. 그해 11월 30일 제36차 UN총회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현재는 9월 21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정했다.

조영식 박사는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가치를 두고 비전을 제시하는 선지자(visionary)였다. 1964년 개교 15주년 기념 학원제에서 조영식 박사는 개교 50주년과 100주년에 보내는 미래메시지를 발표했다. 미래메시지에는 "경희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미래세대를 향해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라는 큰 목표가 현명한 여러분들에 의해서도 계속 추진됨으로써 학술 발전을 통한 인류의 문화 향상과 복리 증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월 18일 열린 조영식 박사 1주기 추모 원탁회의는 그 같은 교육철학과 사회사상, 평화정신, 미래비전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다. 이를 계기로 경희대학교는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탁회의의 주제는 '학술과 평화-경희는 무엇을 기릴 것인가'였다.

# 학술과 평화, 경희는 무엇을 기릴 것인가

조영식 박사 1주기 추모 원탁회의 개최, 철학과 사상 계승·발전 계획 논의  
 조인원 총장, “더 나은 지구사회와 문명 위해 노력할 것”



‘1주기 추모 원탁회의’에서 60여 명의 참석자는 미원 조영식 박사의 철학과 사상을 계승·발전시킬 기념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1주기 추모 원탁회의가 지난 2월 18일 서울캠퍼스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학술과 평화-경희는 무엇을 기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원탁회의에는 조인원 총장과 부총장단, 기념사업추진단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원탁회의는 기초발제, 집담회,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영식 박사의 철학과 사상을 되새기고 현재화·미래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에서 “조영식 박사의 철학은 경희대학교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와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에 요약돼 있다’면서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만들어 온 경희는 최근, 지구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의 소명을 UN과 함께 고민했고, 인간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조인원 총장은 “더 나은 지구사회와 문명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세상의 모습을 부단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학술과 평화’ 구현과 세계적 대학 건설이 경희의 사명

기초발제에서 손재식 평화복지대학원 명예원장과 박상식 평화복지대학원 교수는 “문화세계, 지구공동사회(Global Com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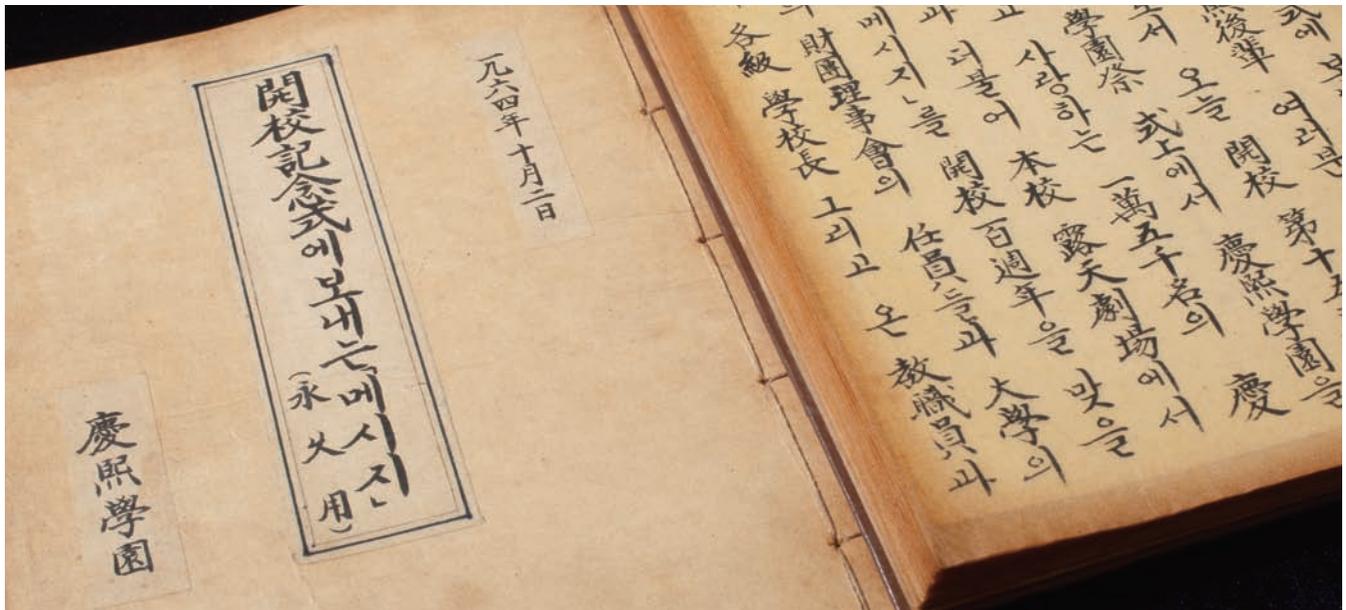
Society), 인간중심주의, 보편적 민주주의 사상을 계승하자”고 말했다. 조영식 박사는 1951년에 발간한 두 번째 저서 <문화세계의 창조>에서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평화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상을 전개했다.

마지막 기초발제에서 이동욱 경희학원 이사는 경희의 미래전략 핵심사업인 바이오헬스·미래과학·인류문명·문화예술·사회체육 등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 중 인류문명 클러스터에 조영식 박사의 사상을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조영식 박사의 학술과 평화사상, 세계적인 대학을 향한 뜻을 공유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경희의 사명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조영식 박사의 사상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과 연구, 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평화복지대학원 김관봉 교수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조영식 박사의 사상을 연구하는 연구소 설립과 동상 제작을 제안했다. 손재식 명예원장은 일부 학부와 대학원에 ‘평화학 입문’ 과정을 개설하거나 평화문제에 관한 특강 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김운호 대외협력처장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재를 통해 조영식 박사의 철학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문재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세계시민교육> 교재 발간을 건의했다.

# ‘경희 100년’ 구상한 미래비전

1964년 발표된 조영식 박사의 ‘개교 100주년에 보내는 메시지’  
‘경이로운 경희’의 역사 돌아보며 ‘세계적인 대학 건설’에 대한 의지 표현



조영식 박사는 1964년 ‘개교 100주년에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메시지 원본이다. 한지에 붓글씨로 써서 전통 방식으로 제작했다.

지난해 미원 조영식 박사가 타계한 후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교 100주년에 보내는 메시지(이하 미래메시지)’ 원본이 발견됐다. 미래메시지는 1964년 10월 2일 개교 15주년 기념 학원제에서 발표됐다. 미래메시지 내용은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라는 2개의 핵심어(keyword)로 요약된다. ‘경이로운 경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평가다. ‘세계적인 대학 건설’은 경희의 미래비전과 목표다.

당시 조영식 박사가 미래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서로 얼굴을 맞댈 수 없는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것이었다. 첫머리에서 조영식 박사는 “(경희의) 창학정신과 교육방침을 여러분에게 바로 전달하려는 뜻”과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정신상으로 소원해지기 쉬운 우리의 상호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조영식 박사는 ‘경이로운 경희’의 역사를 돌아본다. 1951년 피난지 부산에서 신홍초급대학을 인수한 후 조영식 박사는 1960년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일관된 교육체제를 갖춘 경희학원을 설립,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그 바탕이 된 것은 순한 고난(aporia)을 극복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불굴의 경희정신이다.

조영식 박사는 “새로운 창의와 끊임없는 노력 즉 창의적인 노력은 우리 경희정신의 첫머리요, 고난에 도전하고 역경에 감투하는

호연지기 즉 진취적 기상은 그 둘째요, 평화와 문화복지 건설의 기틀을 단결에서 구하는 것 즉 건설적인 협동은 그 셋째가 된다”고 경희정신을 설명한다.

이 같은 경희정신 아래 수립된 경희의 교육방침은 인간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 등 네 가지다. 이 중에서 ‘민주교육’은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성숙한 인간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경희의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방침이다

미래메시지는 ‘세계적인 대학 건설’을 목표로 제시한다. 개교 15년 만인 1964년 당시에 이미 조영식 박사는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 영영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담대한 포부를 밝힌다.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동안 반드시 우리의 뜻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적어도 우리들의 후배인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말로 미래세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다.

경희대학교는 지난 2009년 개교 60주년을 계기로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며 21세기 새로운 명문으로 도약한다는 미래비전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같은 경희의 비전은 50년 전 조영식 박사가 선언적 형태로 제시한 미래메시지를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 경희의 학술세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2013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 연찬회 2월 21~22일 개최  
 조인원 총장, '영원한 혁신과 대학의 미래' 강조



2월 21~22일 강원도 양양에서 2013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회가 열렸다. '경희의 학술세계-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주제의 이번 연찬회에서는 '경희 학술'의 미래를 모색했다.

**2013** 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 연찬회가 2월 21~22일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됐다. '경희의 학술세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Academic, All for Academic-A New Hope for the Future)'를 주제로 진행된 연찬회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기반인 학술세계를 한 단계 더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연찬회에는 조인원 총장과 부총장단, 재정사업위원장, 서울·국제캠퍼스 교무위원, 의료기관장, 부속기관장, 대학(원) 행정실장, 본부 부서 부처장 및 과장, 경희사이버대학 부총장 및 교무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희대학교는 지난 2년간 큰 미래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며, 대학다운 미래대학은 '학술기관으로서 대학 본연의 사명인 학술적 탁월성을 성취하고, 이를 지구적 실천과 결합해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문명에 기여하는 대학'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올해 연찬회에서는 '학술'과 '실천'을 바탕으로 학술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했다.

### “다양성 포용하는 실현적 제도 마련”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 '생각탐-영원한 혁신과 대학의 미래'를 통해 “경희대학교는 설립 이래 ‘학문적 탁월성’과 그 학문적 탁월성을 실천으로 전환해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학문의 실천적 함의’의 전통을 만들어왔다”고 말한 뒤, “실천적 함의를 갖고 있는 학술세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경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를 위해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실현적이고, 구성원이 학문적 열정을 지속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성원 스스로 경희의 역사와 전통에 자부심을 갖고,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조인원 총장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경희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연찬회에서 다뤄진 주제는 크게 두 가지다.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가 요청하는 석학(碩學), 대가(大家), 거장(巨匠)의 길,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학술의 온축을 통한 경희의 실천적 기여, 무엇을 활성화할 것인가?

첫째 날 진행된 '원탁회의 I: 경희의 학술세계'에서 발표자들은 교수·학생의 학문적 도전과 지원에 관한 국내외 명문대학과 경희대학교의 사례를 학문 분야별로 점검했다. 남순건 대학원장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은 재정 수입의 51%가 연구비 수입”이라며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연구비 수입 증대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백광희 생명과학대학장은 “최근 우수한 연구 성취를 이룬 교수들은 공통으로 공동연구

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해왔다”면서 공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기봉 교수도 “오늘날 대학들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이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연구공동협력체 형성 등 공동연구로 학술역량을 내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원인사제도, 질적평가 반영 확대

‘원탁회의 II : 교원인사제도’에서는 경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교원인사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경희의 교원인사제도는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가와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량평가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보완돼 교수평가에 인용지수(IF·Impact Factor) 등 질적평가를 반영하게 된다. 이외에도 ‘포스트 테뉴어 리뷰(Post Tenure Review)’ 도입을 추진 중이다. 포스트 테뉴어 리뷰는 정년이 보장된 교수를 3년 단위로 재평가하는 제도다. 경희대학교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맞춤형 연구지원제도 실시 후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맞춤형 연구지원제도는 학문 분야별 특성에 따른 연구 다양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제발표에서 경제학과 이우현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예일대학교의 교원인사제도 사례를 제시하며 학과장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호창 경영대학장은 “아시아권 20위 대학을 살펴보면, 홍콩과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 수준의 대학 순위가 높다”면서 그 이유로 교수진의 국적 다양화(국제화)를 꼽았다. 그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교수진 초청을 요청한 뒤, “교수 초청에 앞서, 주택, 가족 지원, 대학 내 편의시설 지원 등 외국인 교수에게 맞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단과대학(원)의 특성을 고려하고, 질적 성취를 반영한 교원평가 방법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임성호 서울캠퍼스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제도는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단과대학(원) 특성을 반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성·고유성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제도 개선 위한 자율운영 확대 요청

분임토의에서 참가자들은 원탁회의 I과 II의 연장선상에서 교원인사제도의 학문별 특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분임토의 결과 발표에서 정진영 국제캠퍼스 교무처장은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된 교원인사제도의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 해결책으로 자율운영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대학본부는 우수한 사례와 기준을 제시하고, 단과대학(원)과 학과에서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교수, 학생, 대학, 학과가 함께 발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장과 학과장의 권한이 확대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동연구 진작을 위한 교류 공간 요청에 임성호 교무처장은 각 분야의 연구 현황과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 등 연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리서치 포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제도와 문화 함께 고려해야”

경희만의 학술세계 구축을 위해 제도와 문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서영 약학대학장은 “대학의 학술세계는 제도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구성원의 합의점 도출과 함께 공감대 형성, 문화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운식 전자정보대학장은 “경희의 학술세계는 교수의 학문적 도전 이외에도 대학원생의 학문적 도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대학원생에게 우수한 교육 환경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스스로 도전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찬회는 총장과의 대화로 마무리됐다. 조인원 총장은 “지난해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에 4,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고 전한 뒤, “학생들이 현장교육, 공공실천에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였고, 관심 분야 역시 인권, 환경, 평화 등 다양했다”면서 “교육·연구와 연계한 실천적 확산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Info 21’ 사업 학술행정연구원 추진 계획

### 전문행정 고도화 전기 마련

올해 연찬회에서 학술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Info 21’ 사업과 교무위원과 교직원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담당할 ‘학술행정연구원(가칭)’ 설립 방안이 발표됐다.

‘Info 21’은 미래정보화 모델을 수립·구축해 현 역량을 극대화하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2015년 3월 오픈이 목표다. 현재 ‘Info 21’의 기반이 되는 경희학원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를 통해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등 기관별 정보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전자정보대학 홍충선 교수는 “업무 지원뿐 아니라 조직의 비전과 전략 달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경희학원 전체의 기관별 정보화 전략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기관별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술행정연구원(가칭)’은 전문적인 학술행정 구현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교무위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의 창학정신, 전통과 역사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돕고 목표, 발전 방향, 정책기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감과 소명의식을 갖도록 하는 선도적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연찬회 참가자들은 ‘학술행정연구원(가칭)’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박준봉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신진 교수에게 교수법을 가르쳐 교육에 대해 깊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경희의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설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중진 교수에게 교수 리더십 등을 교육해 학장에 대한 준비과정을 교육하자”고 건의했다.

학술행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조인원 총장은 “대학행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 교수와 학생, 교수와 직원과의 관계, 의료기관 행정 기반과 여건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폭넓게 조사해 명칭과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박사 231명, 석사 1,277명, 학사 4,188명 배출

최우수 학위논문상, 전정호·김재현·오현아·임종욱·박태승 5인 수상



2월 20일 서울·국제캠퍼스에서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됐다. 학사 4,188명, 석사 1,277명, 박사 231명이 졸업 학위를 받았다.

**2012** 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20일 서울과 국제 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는 조인원 총장, 김용철 경희학원 이사장 등 경희가족 3,0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경희의 교육혁신, 졸업생들의 앞날과 함께할 것”**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4,188명, 석사 1,277명, 박사 231명, 특별과정 97명이 졸업 학위를 받았다. 박지수(철학과 10학번), 김민아(관광학부 09학번), 이지나(한의학과 07학번) 등 13명의 학부 졸업생이 총장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학위논문상의 영에는 전정호(경영학과 07학번), 김재현(우주과학과 07학번), 오현아(기초한의과학과 11학번), 임종욱(디스플레이재료학과 11학번), 박태승(체육학과 09학번)

등 5명의 대학원 졸업생에게 돌아갔다. 조인원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며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각박한 경쟁, 실업, 자살, 폭력, 정치와 사회적 담론의 부재 등 시대의 고통과 사회의 아픔이 있다”고 진단한 뒤에 “이를 치유하는 데는 개인의 성취와 사회의 성장에 초점을 둔 전문지식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과 타인의 도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사회와 공동체는 치유에 필요한 이해와 공명, 연민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인간에 대한 근원적 성찰, 공동체의 규범과 덕목, 혁신 의지와 사회적 실천을 가르치는 배움의 또 다른 길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인원 총장은 졸업생들이 ‘더 큰 자신, 더 큰 사회의 미래’를 위해 또 다른 배움의 길을 찾아나설 것을 당부하고

“개인과 인류의 희망을 기리는 경희의 교육혁신이 졸업생들의 큰 배움의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인의 자긍심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겠다”**

이날 행사에서는 졸업생 인터뷰 영상 ‘경희의 도전-사랑, 꿈, 희망’이 상영됐다. 영상에서 신인식(생물학과 09학번) 학생은 “경희대학교에서 봉사는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을, 그리고 봉사는 남을 위한 배려가 아닌 자신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배웠다”고 전했다. 박경미(산업경영공학과 08학번) 학생은 “신입생 멘토링, 해외탐방, 어학연수, 카네기 리더십 교육 등 경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발전되고 성숙해질 수 있었다”면서 “경희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세상의 중심에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 “치유와 공명, 배움의 길”

“혁신 의지와 사회적 실천, 이를 위해 더 큰 배움과 학습의 장 필요”  
 “졸업은 더 큰 자신, 더 큰 사회의 미래를 위해 또 다른 배움의 길을 찾아나서는 것”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경희대학교 조인원 총장은 졸업을 축하하고 미래를 격려하는 졸업식사 ‘치유와 공명, 배움의 길’을 연설했다.

##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 조인원 총장 졸업식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대부분은 2009년에 입학하셨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은 입학년도가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2009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2009년엔 여러분의 모교 경희에도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희의 오랜 전통, ‘학문과 평화’와 함께 세계시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UN과 유네스코 세계시민협약체제가 함께했습니다. 소외와 인권, 갈등과 평화 같은 보편의제를 다뤘습니다. ‘더 나은 인간과 문명’의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그간의 대학생활, 어떠셨는지요? 자신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소중한 꿈을 키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하면서,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 이후 마주할 캠퍼스 너머 세계를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30명 중 1명, 국민 10명 중 1명. 어떤 통계인지 궁금하시지요? 최근 우리 사회에 열풍을 일으킨 도서 구입자와 영화 관람자 수입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평화의 전당에선 특별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강의했습니다. 그 해 우리 사회에 ‘정의 신드롬’을 일으킨 샌델 교수의 책은 출간된 지 1년 남

짓한 기간에 130만 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의’와 같은 딱딱한 인문·사회과학 주제가 이처럼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리라곤 예상치 못했습니다.

한국인의 반응, 왜 이처럼 뜨거웠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불안정한 구조와 도덕의 붕괴, 근원적 성찰과 해법 없는 정치권. 사회적, 정치적 혼란에서 번민하는 시민들이 ‘정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130만 독자, 그 밖의 수백만 간접 독자와 화자가 치열한 자본주의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란 물음에 큰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의 열풍’이 채 식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사회 현상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레 미제라블 현상’입니다. 19세기 초 프랑스의 암울했던 사회 상황과 혁명의 전조를 그린 레 미제라블이 5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50여 년 전 출간된 빅토르 위고의 원작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에 영화, 뮤지컬, 연극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영화와 뮤지컬로 소개됐습니다. 민중의 고통과 수난, 인간적 삶의 갈망을 그린 레 미제라블이 최근 한국인, 한국 사회와 특별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문명사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는 산업화, 민

주화를 거쳤습니다. 이 시대를 거치며,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시대의 고통, 사회의 아픔이 있습니다. '풍요 속 결핍과 모순'의 사회 심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치열하고 각박한 경쟁사회와 함께 열린 100만 실업시대, 폭증하는 자살률과 이유 없는 폭력의 연쇄 고리, 대안 부재의 정치와 사회적 담론의 빈곤, 성공과 성장 신화에 내몰린 개인의 삶이 시대의 아픔과 함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천착해야 할 인간의 숙명이 각박한 경쟁사회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4년 배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전문화 교육을 접했습니다. 전문지식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취와 사회의 성장 신화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성취와 성장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 지식은 전문적이지,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지식과 배움의 이런 한계는 우리 지성사회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더 나은 인간을 추구하지 않는 배움, 사회 안정과 성숙을 포괄하지 않는 배움, 이런 배움은 제한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불안과 함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중후, 위로와 치유 열풍은 바로 이 불완전한 배움의 결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엔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대학에 가야 한다. 대학은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곳이다. 전문지식은 개인이 원하고, 경제가 요구하는 수요의 연장선상에 서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강박의 틀 속에선 지식과 배움은 그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결과는 상처와 치유의 반복입니다. 그 중후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상처와 치유는 내면의 성찰을 요구합니다. 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와 공동체는 치유에 필요한 이해와 공명, 연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배움의 또 다른 길, 또 다른 열림입니다. 인간에 대한 근원적 성찰, 공동체가 갖춰야 할 규범과 덕목, 이 둘을 연결할 혁신 의지와 사회적 실천. 이를 위해 더 큰 배움과 학습의 장이 필요합니다.

서구 대학 총장들은 전통적으로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에게 철학과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 큰 배움의 길을 위해 지식과 학문의 참된 의미를 학생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세속화, 현대화가 심화되면서 이런 교육의 기회는 그 기반이 취약해졌습니다. 특히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추세가 깊어지면서, 배움은 개인적 성취와 물질적 성장 논리로 압축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하버드대학교 파우스트 총장은 교육과 배움의 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고등교육의 도구적 기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더 안 좋아 보입니다. 압축 성장에 따른 사회 혼란이 점증하면서 '큰 배움'의 기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회에서 당장 활용할 지식을 전수해라. 취업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라. 대학 경쟁력을 키워라. 사회에 회자되는 이 말의 문화적 근저에 우리 대학사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적 성취와 물질적 성장은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성취와 성

장 동력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안정과 지속을 위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상처와 고통, 불안과 심려의 증후는 치유돼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배움의 또 다른 길, 공명과 연민의 학습이 기여할 공간이 있습니다.

대학은 말 그대로 大學, 큰 학문의 장입니다. 큰 학문, 큰 배움은 전공 지식과 인간의 길, 자연의 원리를 함께 성찰하는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영원한 새로움을 창조하며, 혁신과 개선을 거듭하는 실천의 장입니다. 그 도전의 과정, 실천의 장이 대학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학문을 나섭니다. 대학문을 나선다는 것은 배움의 종결이 아닙니다. 더 큰 자신, 더 큰 사회의 미래를 위해 또 다른 배움의 길을 찾아나서는 것이 졸업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때그때 처한 문제 풀이로만 삶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장과 성취가 가능한 안정적 사회와 문화, 문명의 길은 이 기반이 유지될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정의'에 대한 열풍, 21세기 우리 사회에 다시 탄생한 19세기 프랑스의 변혁 의식, 이에 대한 열광의 논거는 바로 큰 배움과 성찰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21세기 '인간화 프로젝트'의 의미를 되새긴 정치철학자 로베르트 옹거는 현대사회 모순 해결의 첫 걸음으로 '주체의 각성'을 강조합니다. 인간 내면의 무한한 초월적 역량이 억압적 사회에 끊임없이 저항할 때, 더 나은 세상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근간으로 '배움의 혁명'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생의 학습 현장에서 강조돼야 할 '인간과 우주의 원리', '영원한 새로움과 창조적 보편에로의 도전', 유한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창조하는 것이 배움의 원천일 것입니다. 더 나은 우리들의 미래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입학한 2009년은 경희가 더 넓은 세계와 조우한 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시민포럼이 열렸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기획됐습니다. 두 가지 구상이 기획 과정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는 경희가 설립 이래 구현해온 배움의 공적 실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인간과 문명의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상은 기초와 전공, 실천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자기 발견과 사회적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의 지구적 함축을 창조하는 '배움의 가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희는 더 나은 개인과 사회, 문명의 미래를 열고자 했습니다.

치유와 공명, 배움의 길, 산업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뒤안길을 돌아보는 데 중요한 소재입니다.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의 꿈과 희망을 사회 발전, 문명 진보에 동참하게 하는 소중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4년의 배움, 100세 시대를 향해 거듭될 배움의 기회가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경희는 그 꿈과 희망을 이어갈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배움의 미래, 더 나은 인간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할 큰 배움의 길, 개인과 인류의 희망을 기리는 '경희의 교육 혁신'이 함께 하겠습니다.

# 성금캠페인 통합기구 ‘경희미래위원회’ 발족

경희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경희의료원·강동경희대학교병원 모금체제 일원화  
올해 5월 출범 목표, 사회적 존경받는 동문·명망가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등 경희학원 4개 기관의 모금체제를 통합하는 경희미래위원회가 출범한다. 사진은 국제캠퍼스 네오르네상스문(정문).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등 경희학원 4개 기관의 모금체제를 통합적으로 이끌어갈 경희미래위원회가 출범한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 거교적 성금캠페인을 펼친다는 계획에 따라, 기존의 성금캠페인통합사무국은 경희미래위원회사무국으로 확대 개편됐다. 대학과 의료기관의 모금체제 통합은 국내 최초의 거버넌스 혁신이다.

## 대학과 의료기관의 모금체제 통합한 거교적 성금캠페인 전개

경희미래위원회사무국(사무총장 김운호)은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위원 선정을 진행 중이다. 경희미래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동문과 명망가 50인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산하에 교육·연구·의료·실천·인프라 등 주제별 소위원회를 설치하

고, 거교적 성금캠페인을 전개한다.

경희미래위원회사무국은 위원회 운영 지원, 성금캠페인 모금 아이템 개발 및 모금 실행 등 다양한 실무를 담당한다. 성금 캠페인 취지와 운영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 기부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운호 사무총장은 “지속적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성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효과를 냈는지 개별적, 공개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부자들이 더 보람을 느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변에 경희의 성금캠페인이 전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희의 지구적 존엄 구현하는 기반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경희미래위원회는 경희의 철학과 비전, 가치를 담아 경희학원 전체 차원으로 통합 성금캠페인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

다. 아울러 산하기관 및 단과대학(원)별 모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부자 클럽을 활성화한다는 구상도 구체화하고 있다. 재학생의 기부의식을 고취하는 행사와 함께 대학과 졸업생 간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동문 재상봉 행사,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행사도 추진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평화와 공영의 지구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경희정신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경희미래위원회사무국은 성금캠페인 캐치프레이즈로 ‘Global Trust(지구적 신뢰)’를 선정했다. 이는 경희가 사회로부터 받은 신뢰를 교육·연구·실천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미다. 김운호 사무총장은 “통합 성금캠페인을 통해 경희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구적 존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학술진흥 2020’ 위한 맞춤형 연구지원제도

연구 목적에 적합한 지원, 자율적 신청 가능  
세계적 명문대학 도약의 기반이 될 연구 시스템 구축



경희대학교는 올해부터 학술진흥을 위한 ‘맞춤형 연구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경희대학교는 올해부터 ‘맞춤형 연구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각 학과 및 대학(원)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 전공별·계열별·개인별 연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맞춤형 연구지원제도는 학술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경희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학술진흥 2020’ 계획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목적에 적합한 조건

을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은 합리성 및 경제성 심사 후 합당한 연구비를 지원한다.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차등 지급도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했다.

맞춤형 연구지원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7차 합동교무위원회다. 당시 조인원 총장은 “더 나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학술 부분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이뤄내는 것이 대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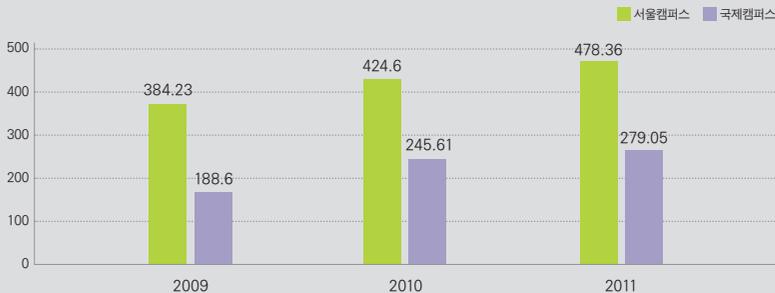
근본 가치”라며 “학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학과, 교수 한 분 한 분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후 약 1개월 동안 부총장 주재로 제도 수립을 위한 학과별 간담회가 진행됐다. 연구산학협력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연구 성과를 분석했다.

연구산학협력처 김재경 처장은 “최근 3년간 국내외에서 발표된 논문·저서·역서 등 연구 성과를 분석한 결과 우수교원 신규 임용이 연구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5년간 교원 600명 임용, 연구 질 향상

경희대학교는 5년간 600여 명의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등 국내외 우수교원을 적극 영입하고 다양한 연구지원제도를 도입해 연구 탁월성의 기반을 구축해왔다. 연구산학협력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논문 수가 8% 감소한 반면 국제논문 수는 11% 증가했다. 연구 논문의 질적 향상이 이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목할 것은, 서울캠퍼스 인문사회계열 국제논문 성과가 41.7% 증가했으며, 국제캠퍼스가 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초빙한 IS(International Scholar), ES(Eminent Scholar)의 연구 논문 1건당 평균 인용지수가 평균치보다 2~2.6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임용 3년 이내 신입교원의 국제논문 성과가 기존 교원의 2배로 집계된 반면, 전체 교원 중 국제논문 실적이 전혀 없는 교원 비율이 44.81%에 이르는 한계도 드러났다. 맞춤형 연구지원제도는 연구 활동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활기차고 도전적인 학술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9~2011년 국제 논문 실적 (단위: 편)



# 정년연장교원 4명 첫 선정

국어국문학과 김재홍, 영어영문학과 권택영, 간호학과 강현숙, 아동가족학과 조복희 명예교수

지난해부터 경희는 학술문화 활성화 를 위해 정년연장교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년연장교원제도는 교육·연구·실천 분야에서 업적이 탁월하고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다. 시행 첫해 선정된 4명의 정년연장 교원은 국어국문학과 김재홍 명예교수, 영어영문학과 권택영 명예교수, 간호학과 강현숙 명예교수, 아동가족학과 조복희 명예교수 등이다.

정년연장교원 선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만 63세가 되는 교수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연구 실적, 교육 평가, 사회봉사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해당 분야 최고 석학 수준으로 인정되는 교원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정년 전 10년간의 업적 평가에서 5년 이상 상위 25%를 차지한 경우(단, 2011년 8월~2013년 8월 정년퇴임 교원의 경우는 상위 40%)。 지난해 선정된 4명의 교원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김재홍 명예교수** 교직 생활 40년 중 25년을 경희와 함께해왔다. 시인 및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문학예술인을 양성했다. 4년간 중앙도서관장으로 재임하며 '작은음악회'를 개최, 지역사회 주민과의 나눔에 앞장섰다. <한용운 문학 연구>, <한국 현대시인 연구 1·2>, <카프 시인 비평>, <시어사전> 등 30여 권의 학술연구서를 포함, 6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

인문학을 '오래 묵을수록 향기가 깊어지는 포도주'에 비유한 그는 정년연장교원 제도 시행과 관련, "수십년간 축적된 지식

과 지혜가 일거에 정지되는 것은 아까운 일"이라며 "학문 연구를 장려하고 학생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정년 무렵이 되면 학문과 인생에 대한 느낌과 깨달음이 더 풍성해진다"면서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우고 보다 깊은 시선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권택영 명예교수** 32년 동안 영미문학을 강의하며 문학평론가와 소설가로 활동해왔다. <후기 구조주의 문학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자크 라캉: 욕망이론(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문화시대의 글쓰기> 등을 출간했다. 국내 인문학이 해외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에 꾸준히 도전했다. 2010년과 2011년 경희 펠로우에 선정된 바 있다.

권택영 명예교수는 "국내 인문학 분야 논문이 우수한 해외 저널에 게재되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외에 나가 부딪히면서 객관성을 찾고 세계문화의 흐름과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것을 살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교원제도와 관련해 "교원의 정년이 없는 서구는 70세 이상이어도 학생이 있는 한 연구와 강의를 계속 해나갈 수 있다"며, "경희대학교가 타 대학 보다 앞서 정년연장제도를 시행한 만큼 제도가 점차적으로 안정·확대돼 국내 대학 전반에 정년연장교원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숙 명예교수** 40여 년간 경희와 함께하며 수많은 간호 전문 인재를 길러냈다. 대학원 주임교수와 간호학과장을 역임했으며, 학생지원처 '여학생과' 보직을 수행하며 교내 성희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후학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경희대학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주요 저서로 <재활의 이론과 실제>, <통합적 재활간호>, <재활의 기능사정과 결과 측정> 등이 있다.

강현숙 명예교수는 정년연장교원 선정에 대해 "열심히 해온 것을 인정하고 보답해주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한 뒤 "남은 기간 동안 후배와 제자들을 뒷받침하고 노하우를 전달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 간호학과가 실습과 연결된 자체 수익사업과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학생들이 전공을 활용해 간호사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 경로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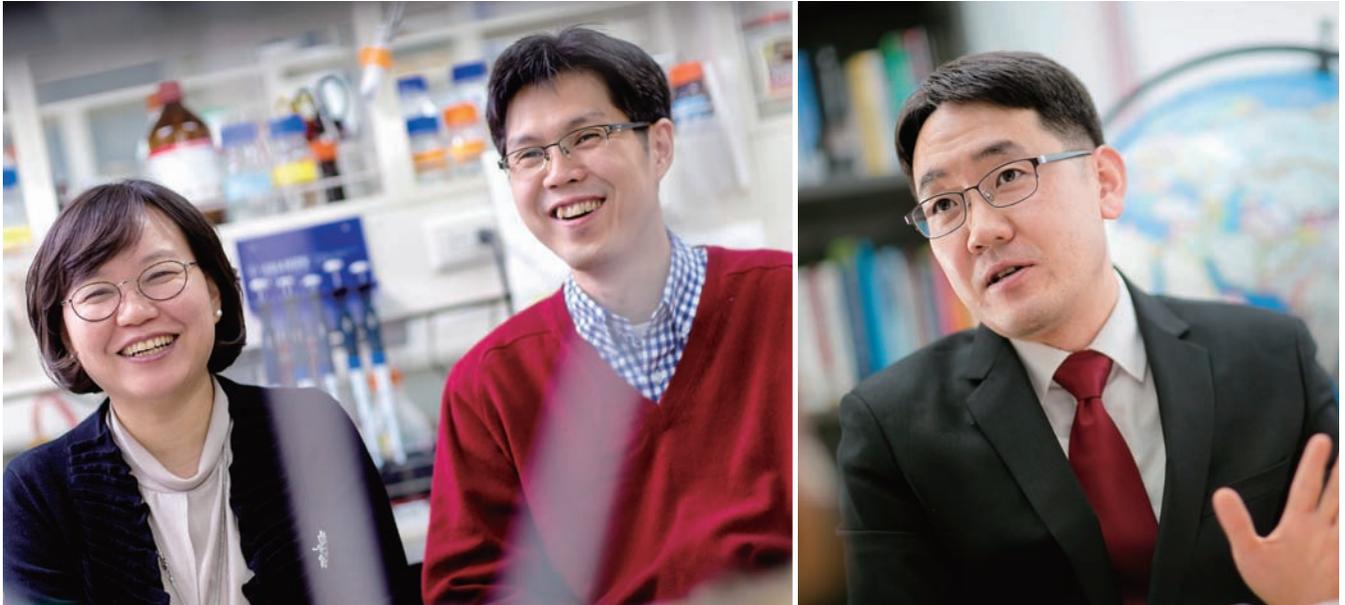


**조복희 명예교수** 1977년 경희대학교 문리과 대학 내 가정학과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했다. 1990년부터 미국 오리곤주립대학, 조지아대학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가족학과 학생들의 국제화에 앞장섰다. 1996년 생활과학대학관 건물 내에 아동연구실 설립을 추진하고 창의성 교육에 앞장섰다. 서울 강남구에서 경희대가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센터 설립에도 기여했다. 2001년에는 북한의 아동학 전문 학자들을 초청, 연변에서 한국 학자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국제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소장(2008~2012)을 역임했다.

조복희 명예교수는 "정년연장으로 연구 기회가 확장되고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희의 정년연장교원제도는 국내 대학사회의 선구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연구지원제도의 확대, 탁월한 연구 성과로 결실

치전원 김정희·김정목 교수, 생명과학 최고 권위 저널 <셀>에 논문 게재  
지리학과 지상현 교수, <미국지리학회지>에 두 번째 논문 발표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정희·김정목 교수(왼쪽), 지리학과 지상현 교수(오른쪽)의 논문이 각 학문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게재됐다.

경희가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한 ‘학술진흥 2020’ 추진과 함께, 탁월한 연구 성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최근 5년간 600여 명의 우수 교원을 신규 임용하고 각종 연구지원제도를 확대, 연구 탁월성을 성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왔다.

그 같은 노력의 결과,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김정희·김정목 교수 연구팀 논문이 생명과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 <셀(Cell)>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리학과 지상현 교수는 <미국지리학회지>에 두 번째 논문 발표를 앞두고 있다. <미국지리학회지>에 두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 김정희·김정목 교수, <셀(Cell)> 논문 게재

경희대학교 치전원 김정희·김정목 교수 연구팀이 영양분 결핍 상태에 처한 세포의 자가포식(Autophagy) 원리를 규

명했다. 이로써 당뇨, 암, 치주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2013년 1월 17일자 <셀(Cell)>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Differential Regulation of Distinct Vps34 Complexes by AMPK in Nutrient Stress and Autophagy’다. 이번 연구에는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 연구팀이 참여했다.

최근 신진대사가 다양한 질환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암, 당뇨와 같은 신진대사성 질환과 면역반응 등의 생리활동에 관여하는 자가포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자가포식은 세포가 내외부에서 자극을 받으면 내부 물질을 스스로 분해해 살아남기 위한 영양분을 얻어 약조건에 견디는 과정이다.

김정희·김정목 교수 연구팀은 세포가 자극을 어떻게 인지하고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지에 의문을 갖고, 2010년부터 연

구를 시작했다.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자극 중에서 영양분 결핍에 대한 자가포식 과정을 밝혀냈다.

김정희·김정목 교수 연구팀은 영양분이 부족할 때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분자 작용을 추적했다. 그 결과, 활성화 단백질 인산화 효소(AMPK)가 에너지 결핍을 인지하고, 효소(Vps34) 복합체를 조절해 자가포식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정목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영양분 결핍이라는 한정된 조건에 처한 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다른 자극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면서 “영양분 결핍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기전이 다른 자극에도 적용 가능한지, 생리적 질병과 신진대사성 질환, 치주질환까지 응용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을 규명했다는 것과 함께 치전원

의 연구 범위가 치아와 치주를 넘어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정희 교수는 “치전원의 기초연구 결과 발표를 의아하다는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경희대 치전원은 이미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의학연구센터(Medical Science & Engineering Research Center, MRC) 사업에 선정되는 등 기초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 범위 역시 치아와 치주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연구 등이 이뤄지고 있다. 신체는 모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치전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치전원은 의학, 생물학 등 연계 학문과의 융복합, 관련 연구진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를 위한 기반을 닦아왔다.

### 지상현 교수, <미국지리학회지>에 두 번째 논문 게재

지리학과 지상현 교수가 <미국지리학회지(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AAG)>에 두 번째 논문을 게재한다. <미국지리학회지>는 지리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로, 연간 1회 발행된다.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전쟁을 겪었다. 어떤 전쟁은 작은 분쟁으로 끝나고 어떤 전쟁은 세계적 규모로 확산됐다. 지상현 교수는 전쟁이 전 세계로 번지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지리학적으로 분석했다. 전쟁 확산 원인을 지리학적으로 연구한 지상현 교수의 이번 논문은 올 하반기에 출간될 <미국지리학회지>에 게재된다.

지상현 교수는 2009년 <미국지리학회지>에 발표한 첫 번째 논문 ‘Conceptualizing Conflict Space: Toward a Geography of Relational Power and Embeddedness in the Analysis of Interstate Conflict’에서 전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지리적으로 떨어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야 하고, 그 구조가 확장되기 쉬워

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로 제1차 세계대전을 제시했다. 1914년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전쟁이 시발점이 된 제1차 세계대전은 이들 국가의 지리적 위치, 주변국과의 관계적 위치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참여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전쟁이 전 세계로 번졌다는 것이다.

올해 발표될 두 번째 논문은 이 이론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증한 논문이다. 두 편 모두 인접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완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학문 간 융합을 통해 공간적 현상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지상현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평화, 선거, 질병 등에도 적용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융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학문에서 전쟁, 평화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융합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오류를 줄어어나가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쟁과 평화는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돼온 주제다. 지리학에서도 타 학문과의 융합으로 이 부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융합을 통해 모델 구조를 만들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연구하면서 지리학의 범위가 기존의 지역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공간적 현상의 규칙성을 파악하는 학문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상현 교수는 “처음에는 지역과 사람 간의 갈등에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에는 문화로서의 지정학, 전쟁과 평화로 시야를 넓혀나갔다”라며 “그 과정에서 ‘왜?’라는 의문을 품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학문적 진리를 탐구해나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진리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는 것은 나중 문제”라며 “학생들에게 진리 탐구에 몰두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학생으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지리학이 비평적 사회과학으로서 학생들에게 다른 시각, 발상의 전환을 가져다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현동 교수 국제전기전자학회 논문상 수상

2011년 발표 논문 업적 인정



전자·전파공학과 신현동 교수.

전자·전파공학과 신현동 교수가 국제전기전자학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로부터 윌리엄 R. 베네트(William R. Bennett) 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최근 3년간 IEEE 통신 소사이터티에서 발간하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 중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된다.

신현동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LIDS 연구진과 함께 인지무선 네트워크에서 생겨나는 간섭을 어떻게 모델링할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논문은 <IEEE Journal on Selected Areas in Communications>의 2011년 2월호에 게재됐다.

간섭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간섭을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한다. 신현동 교수팀은 공간적 확률 프로그램을 통해 간섭이 경우에 따라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률적 분포를 연구했다. 신현동 교수는 “통신 분야 연구는 대부분이 확률로 이뤄진다”며 “여러 상황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똑같은 작업을 수만 번 진행해 확률을 따졌다”고 설명했다.

신현동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발전하면 인지무선 네트워크에서 간섭을 줄이는 기법을 찾는 것도 가능해지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그는 앞으로 GPS로 위치를 추적할 수 없는 곳에서 와이파이(Wi-Fi)나 기기의 센서 등을 이용해 현재 위치를 찾는 방법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연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 GSC 봉사단, KOICA 국제개발협력사업 전개

캄보디아에서 1년간 경희의 가치 반영한 교육·연구·실천 역량 펼쳐  
1차년도 사업 목표, 교육환경 개선 및 마을공동체 소득증대



지구사회봉사단(GSC)의 캄보디아 봉사활동이 KOICA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선정됐다.

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 GSC) 국제개발협력봉사단이 1월 22일 출국했다. 학생과 교직원 10명으로 구성된 ‘GSC 봉사단’은 앞으로 1년간 캄보디아 현지에서 상주하며 교육환경 개선 및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경희대학교는 지난해 10월 한국국제협력사업단(KOICA)이 추진하는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사업 실행을 위해 경희대학교는 1년간 KOICA 지원금 3억 9,000만 원을 포함, 총 4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KOICA는 1차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1년간 더 연장한다.

지난해 5월 KOICA는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공모했다. 그에 앞서 GSC는 캄보디아 사회공헌 4개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다. 캄보디아 씨엠립주 크라란군 크로치꺼면 크나쓰응 마을을 거점으로 1차년도 마을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봉사, 2~3차년도 마을 개발 및 소득증대, 교육 수준 향상, 4차년도 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2년 1월 1차년도 사업 완료 후 2차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KOICA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 경희의 역량 결집해 지구적 공헌 실현

경희대학교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대학은 학문 발전과 함께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소명의식 아래 2011년 GSC를 창설했다. 지난해 6월 26일 ‘총장 주재 GSC 합동회의’에서 조인원 총장은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바탕으로 경희는 사회공헌을 실행해왔으며, GSC는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봉사·실천 패러다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창설 목적에 따라 GSC는 경희학원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 2012년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 거점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적 실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마을공동체(Peace Village) 구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캄보디아 크나쓰응 마을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 내외부 벽에 페인트 공사를 하고 벽화를 그렸다. 우물 2곳, 화장실 2개동을 설치하고 영어·예체능·적성특기 교육도 실시했다.

### 주민 참여의 새로운 봉사·실천 모델

KOICA 개발협력사업 1차년도인 올해 ‘GSC 봉사단’은 영어·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교사를 양성해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 등 현지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물 문제 해결 방안도 마련했다. 태양광을 이용한 우물을 개발하고, 싼 가격으로 물을 공급하고 수질을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을 세워 운영과 사후관리를 맡길 계획이다. 농촌마을 소득 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작물 재배 및 판매 사업도 진행한다. 마을공동체 이익에 중점을 둔 1차년도 사업의 전 과정에 마을개발위원회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2차년도에는 개별 농가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한다. 개인의 이익을 확대, 주민 스스로 공동체 이익에 공헌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책임자인 후마니타스칼리지 김희찬 교수는 “GSC 봉사단이 철수한 후에도 그동안 추진한 사업이 유지돼 마을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업은 봉사자 입장보다는 현지인 입장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환대의 축전’ 2013학년도 입학식

2월 26~28일 ‘입학주간’으로 정하고 혁신적 입학문화 선보여  
국내 최초의 ‘입학식 퍼레이드’ 진행, 신입생 전원 단과대학별로 입장



2013학년도 신입생 환영행사는 신입생 전원이 캠퍼스를 행진해 입학식장인 평화의 전당(사진)에 입장하는 ‘입학 퍼레이드’ 등 입학문화를 혁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경희대학교가 2013학년도 신입생 환영행사를 통해 혁신적 입학문화를 선보였다. 이를 위해 경희대학교는 대학본부·단과대학·학생회가 참여하는 거교적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을 ‘입학주간’으로 정했다. 신입생들이 경희의 역사와 철학을 이해하고,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학문 탐구의 방법 및 자세, 그리고 새로운 대학생활 및 미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입학주간은 후마니타스의 날(26일), 경희의 날(27일), 공동입학식·환대의 축전(28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틀 동안 예비대학 성격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으며, 마지막날인 입학식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신입생을 배려하고 환대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재학생과 교직원의 환영 속에 모든 신입생이 단과대학별로 입학식장(평화의 전당)에 들어서는 ‘입장

퍼레이드’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행사다. 입학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입생 학부모들은 각 단과대학에서 입학식 실황중계를 시청하고 간담회를 갖는다.

**후마니타스의 날** 교양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주관으로 교양 및 전공교과를 소개해 학술문화 형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했다. 도정일 대학장의 인문학 특강, 대학생의 학습 자세에 대한 특강, 재학생의 학습경험 및 자율적 스터디그룹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경희의 날** 학생지원처 주관으로 신입생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경희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동영상 상영한 뒤 장학, 취업, 봉사, 국제교류에 관한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학습관리 방법, 학생회 및 동아리 등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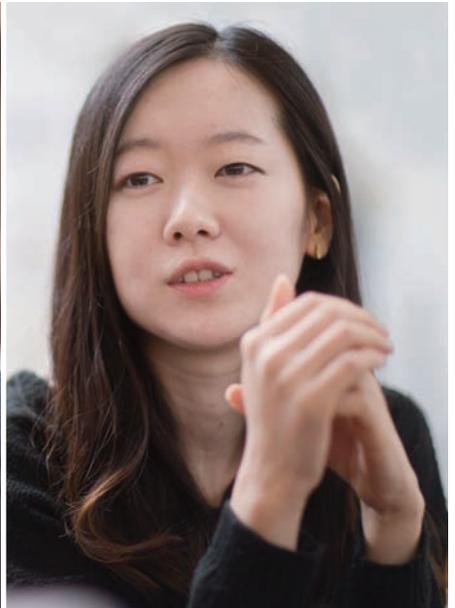
치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공동입학식·환대의 축전** 2013학년도 입학축전은 경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동 입학식이다. 서울 및 국제캠퍼스 신입생 전원은 단과대학별로 모여 입학식장인 평화의 전당을 향해 행진한다. 선배들의 환영 속에 캠퍼스를 가로지르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다진다. 평화의 전당 입구에서는 교수들이 신입생을 맞이한다.

입학식 마지막 순서로 교수·학생·직원 등 전 구성원의 ‘명예선언’ 후 조인원 총장의 입학허가서 낭독이 이어진다. 구성원 명예선언은 ‘더 나은 대학, 존경받는 대학’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다짐이다. 조인원 총장은 신입생들에게 “자랑스런 경희의 역사,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경희의 비전과 함께, 개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성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한다.

# ‘경희문학 60년’ 전통 계승한 국문학과 3인

김재현·박성준 학생, 2013 신춘문예 통해 시인·평론가로 등단  
이재원 학생, 지난해 9월 중앙신인문학상 평론 부문 당선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2013 신춘문예’ 당선자 등 신진 문인 3인을 배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재현(시), 박성준(평론), 이재원(평론) 학생.

국내 언론이 발행하는 새해 첫 신문 최대 뉴스 중 하나는 신춘문예 당선자 발표다. 2013년 신춘문예에서 ‘경희 문학인’ 2명의 이름이 새로 올랐다. 국어국문학과 07학번 동기생 김재현, 박성준 등이 그 주인공이다. 김재현 학생은 조선일보 시 부문, 박성준 학생은 경향신문 평론 부문에서 당선됐다. 지난해 9월에는 국어국문학과 04학번 이재원 학생이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 문학평론가로 등단했다. 이들 3인은 경희문학 60년 전통의 창조적 계승자다.

한국문학 발전을 위해 경희는 1950년대 중반부터 선구적 창작 지원제도를 실시해 왔다. 1955년 문화상 제도를 도입, 문예·학술·체육·예능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이 같은 창작 지원제도에 힘입어 경희대 국어국문학과는 극작가 신봉승, 시인 조태일·이성부·정호승·류시화·이문재, 소설가 고원정·

김형경 등의 동문을 배출했다.

시 <손톱 깎는 날>로 2013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김재현 학생은 고교 시절 문예백일장에서 시 부문 대상을 차지했으며, 문학특기자로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다. 경희문예창작단 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를 써왔다. 그는 “국문과에 다니면서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방법론보다 먼저 시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춘문예 당선작 <손톱 깎는 날>은 몸의 일부이면서도 감각이 없는 손톱을 매개로 몸의 바깥 세계와 자신 사이의 경계에 대한 사유와 통찰을 담고 있다.

평론 <모글리 신드롬-‘가능성’이라 불리는 아이들>로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박성준 학생은 국어국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9년 계간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첫 시집 <몰아 쓴 일기>를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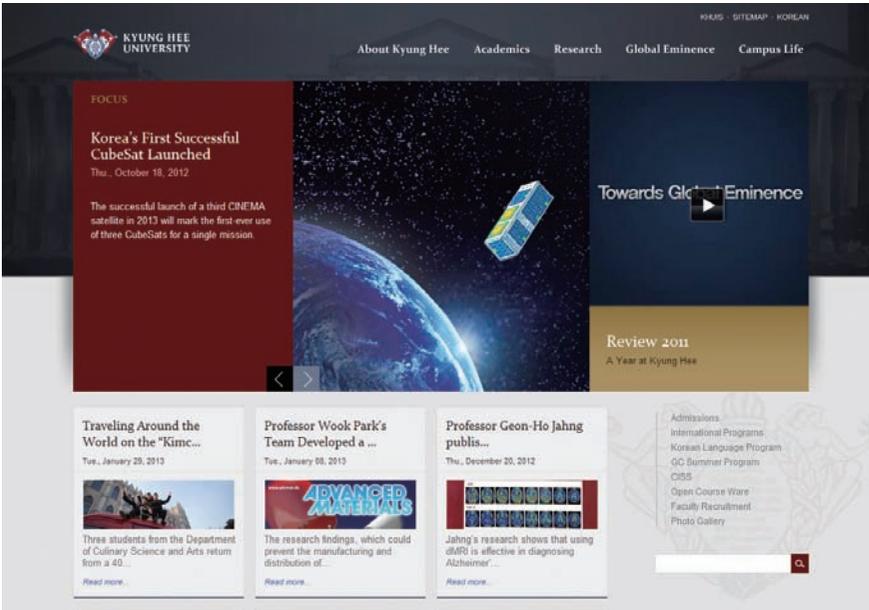
표했다. 평론을 쓰기 시작한 지는 1년도 되지 않았다. 박성준 학생은 “국문학 전공자로서 문학과 문학이론을 배우는 동안 자연스럽게 평론 방법을 체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경희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할 예정인 그는 “시인의 눈으로 시인을 이해하는 평론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원 학생은 평론 <이름을 찾는 주체들의 문장-신해옥, 이근화, 심보선의 시를 중심으로>로 중앙신인문학상에 당선됐다. 이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최근의 한국시가 ‘나의 동일성에서 벗어나 다인칭을 목소리로 나아가는 흐름을 의미화했다’고 평가했다.

문학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이재원 학생은 “앞으로 평론 활동을 통해 삶에 도움을 주는 문학의 힘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3월부터 경희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시작한다.

# 영문 홈페이지, 웹어워드코리아 대상 수상

“데스크탑·모바일 기반의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



제9회 웹어워드코리아 교육 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한 경희의 영문 홈페이지 방문 국가는 100여 개국에 이른다.

경희대학교 영문 홈페이지(www.khu.ac.kr/eng)가 지난해 12월 6일 제9회 웹어워드코리아 교육 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했다. 웹어워드코리아는 국내 유일의 웹사이트 평가 시상식이다. 주최 기관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는 한 해 동안 새롭게 구축 또는 리뉴얼된 데스크탑·모바일 기반의 웹사이트 중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 발표한다.

경희대학교는 지난해 5월 29일 '세계 속의 경희'를 알리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그 후 한국 거주 외국인인 물론이고 미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100여 개 국가에서 홈페이지를 방문,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국가 방문자 수가 전체의 65%에 달해 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희의 높아진 위상을 말해준다.

영문 홈페이지는 '학문과 평화'의 경희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경희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개편 과정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위상을 높여가는 경희의 자긍심을 공유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과 교원, 해외 방문자 등 국내외 외국인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경희대 입학에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뉴스,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를 강화했다.

경희의 영문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블록 형태로 구성, 정돈된 디자인을 보여준다. 대학 소개>About Kyung Hee), 학사 제도(Academics), 연구(Research),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 대학생활(Campus Life) 등 5개 메뉴로 구성된 사이트맵은 경희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디자인은 간결하면서도 예술적 심미성, 정보 접근성, 기능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 국문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구성원 설문조사

50% 이상 '만족한다' 응답

국문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 중인 출판문화원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열흘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재학생 1,099명(83%), 교수 82명(6%), 직원 111명(8%), 졸업생 13명(1%), 기타 22명(2%) 등 1,32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국문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가 매우 만족한다, 46%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52%가 '만족' 이상의 호의적 평가를 내렸다. 부문별 조사에서 콘텐츠 만족도와 기능성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의 51%와 50%가 '만족' 이상의 의견을 제시했다. 디자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58%가 '만족' 이상의 답변을 내놓았다. 매우 만족 10%, 만족 48%였다.

국문 홈페이지 방문 목적은 '공지사항 확인'이 44%로 가장 높았다. 학사정보 확인, 대학(원) 및 부속기관 홈페이지 확인, 대학뉴스 확인, 행사정보 확인, 대학에 대한 관심이 그 뒤를 이었다.

경희 구성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국문 홈페이지 개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부문별 개선사항(중복 선택)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사용자 관련성, 메뉴 구성, 다양성, 최신성 등에 대한 요청이 19~22%로 고르게 분포됐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레이아웃 개선이 47%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기능 부문은 점보 검색의 정확성(36%), 최신 웹 환경 반영(26%)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모바일 기반의 웹 서비스에 관한 구성원 의견도 조사했다. 91%가 모바일 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모바일 웹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양한 모바일 환경,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메뉴 및 콘텐츠 구성의 단순화, 모바일 기기에 맞는 화면 구성과 레이아웃 등이 제안됐다.

# 조리과학과 선후배, '김치버스' 타고 세계일주

400일 동안 23개국, 130개 도시에 김치 맛 알려



전 세계에 김치의 맛을 알린 조리과학과 선후배 류시형(02학번), 김승민(03학번), 조석범(06학번).

경희의 '김치버스'가 400일간의 세계 일주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18일 해단식을 가졌다. 김치버스는 호텔관광대학 조리과학과 선후배 3명이 한국의 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이자 이들이 타고 다닌 버스의 이름이다.

류시형(02학번), 김승민(03학번), 조석

범(06학번) 세 사람은 2011년 10월 23일부터 세계 23개국, 130개 도시, 50,200km를 누비며 현지 학교와 세계음식축제, 유명 페스티벌에서 김치 시식 행사를 펼쳤다. 세계일주를 하는 동안 SNS를 통해 김치버스를 알게 된 개인이나 단체가 초대하면 즉흥적으로 김치 파티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김치 특유의 발효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김치 브랜드 '감칠배기'로부터 2개월마다 50kg의 묵은지를 공급받았다. 김치말이국수와 김치전 등 전통음식뿐 아니라 김치피자, 김치파스타, 김치브리또, 김치핫도그 등 퓨전요리를 선보였다. 김치버스 팀장 류시형 동문은 "우리가 세계를 돌며 김치를 홍보했다고 해서 김치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학년 복학을 앞둔 조석범 학생은 "김치의 매운 맛과 냄새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 나라에서 반응이 좋았다"면서, "김치를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의 도전에 호기심을 보이고 응원해줬다"고 말했다. 김철원 호텔관광대학장은 김치버스 프로젝트에 대해 "전 세계에 김치를 알리면서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취업걱정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치버스 3인의 도전과 열정을 통해 다른 학생들도 용기를 갖고 원하는 일을 해보면서 세계와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치버스 성공을 위해 경희대학교, 광주 세계김치문화축제위원회, 감칠배기, 현대자동차, 코오롱스포츠 등이 총 2억 원을 후원했다.

## '문화교류 디자인' 선도하는 예술디자인대학

영국 골드스미스대학과 공동으로 '디자인 프랙티스 서머스쿨' 개최

예술디자인대학이 디자인의 문화교류 및 융복합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등 디자인계열 5개 학과에서 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3주일 동안 영국 골드스미스대학의 '디자인 프랙티스 서머스쿨

(Design Practice Summer School)'에 참가한다. 경희대학교는 2008년부터 골드스미스대학과 이 프로그램을 공동 주관해왔다. 런던에 소재한 골드스미스대학은 영국을 대표하는 예술대학이다.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장미경 교수는 "학생들이 서머스쿨에서 배우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화교류 디자인(Cross-Cultural Design)이다"라고 말했다. 장

미경 교수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오래 전부터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이는 디자인 속에서도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단순히 디자인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문화, 사회, 정치 등을 이해하고 이를 디자인과 연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학생들의 작품은 전시와 책자 발간으로 공개되며, 2009년과 2012년에는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에 출품되기도 했다.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은 골드스미스대학과 공동으로 2014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전시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 김선국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1월 수상자 선정



공과대학 전자·전파공학과 김선국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1월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은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학연산)에 종사하는 연구개발 인력 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1명씩 선정, 포상하는 제도다.

김선국 교수는 차세대 투명·유연 전자회로 구현을 위해 기존 전자소자의 한계를 극복한 높은 전자이동도와 유연성을 가진 2차원 구조의 다층 이황화몰리브덴(MoS<sub>2</sub>) 기반의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TFT)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련 연구 결과는 2012년 8월 21일 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와 2012년 11월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Vol. 24, Issue 43) 표지논문 게재됐다.

## 황찬용 학생, KDF 장학생으로 세계 무대 진출



황찬용 학생(무용학부 12학번)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불가리아를 방문해 '데리다 댄스컴퍼니 앤드 센터(Derida Dance Company & Center)'가 제공하는 워크숍에 참가하고 현지 공연에도 출연했다. 황찬용 학생은 2012 Korea Dance Festival(KDF) 우수학생으로 선정돼 세계 무대 진출의 길을 열었다.

KDF는 한국 현대무용진흥회가 1990년부터 미국무용페스티벌(American Dance Festival, ADF) 본부와 협력,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적 현대무용 페스티벌이다. 황찬용 학생은 2012년 8월 4일부터 2주간 열린 페스티벌에서 불가리아 안무가 지브코(Jivko)가 뽑은 12명의 장학생에 포함됐다.

## 김말애 교수, 제61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

무용학부 김말애 교수가 지난해 12월 13일 제61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의 문화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문화상을 수여한다. 2012년에는 무용, 문학, 인문과학, 문화산업 등 10개 분야에서 1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 김화례 교수, 제32회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 수상

무용학부 김화례 교수가 지난해 12월 17일 제32회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에 선정됐다. 한국예술평론가협회는 이날 김화례 교수와 함께 영화감독 김기덕, 소프라노 윤이나 등 8명을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로 선정했다. 김화례 교수는 발레 안무가로 활동 중이다.

## 이상훈 교수, 희귀 경추 변형 교정수술 성공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척추센터 이상훈 교수가 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희귀 경추(목뼈) 변형의 교정수술에 성공했다. 23년간 다발성신경섬유종을 앓고 있던 환자는 첫 진료 당시 목뼈가 전방으로 165도 각도로 접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주저앉은 목뼈가 왼쪽 팔다리 신경을 압박해 사지가 마비되는 증세도 있었다. 이상훈 교수는 "심하게 변형된 목뼈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맥 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수술 후 환자는 변형된 목뼈가 거의 교정되고 사지 마비 증세도 없어져 혼자서 정면을 똑바로 보며 걸을 수 있게 됐다.

## 조선영 교수, 미국 임상화학회 'International Travel Grant Winner' 선정

경희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조선영 교수가 오는 7월 28일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개최되는 미국임상화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Clinical Chemistry) 학술대회에서 'International Travel Grant Winner'로 선정됐다. 미국임상화학회는 임상화학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학회다. 조선영 교수는 임상화학 및 진단분자유전학 전문가로서 활발한 학술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3년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등재 논문 34편을 제1저자로 발표했다.

## 곽형우 교수, 아시아태평양안과학술대회 'Arthur Lim Award' 수상

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곽형우 교수가 1월 17~20일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안과학술대회(Asia Pacific Academy of Ophthalmology, APAO)에서 'Arthur Lim Award'를 수상했다. Arthur Lim Awar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과학 발전과 교육에 기여한 의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곽형우 교수는 아시아태평양안과학회 부회장과 미국안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송미연 교수책, 대만에서 번역 출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송미연 교수의 저서 <평생 살 안 찌는 몸 만드는 체형 교정 다이어트>가 1월 대만에서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2012년 3월 국내에서 발행됐다. 책에는 상체 비만 거북이형, 뱃살 두둑 켄거루형, 전신 비만 거미형, 하체 탄실 개미형 등 비만체형에 따른 8주 집중 코어 운동법이 수록돼 있다. 송미연 교수의 저서는 대만에 이어 중국 수출도 결정됐다.

## 김진·김춘길·유병철 동문, 경희언론인상 수상

김진(경제학과 77학번), 김춘길(신문방송학과 78학번), 유병철(신문방송학과 78학번) 동문이 1월 17일 열린 경희언론인회 신년하례회 및 총회에서 2012 경희언론인상을 수상했다. 경희언론인회는 경희대학교 출신 언론인 모임이다. 김진 동문은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정치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춘길 동문은 KBS 스포츠국장, 유병철 동문은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을 맡고 있다.

## 이지나 학생, 한의사 국가시험 수석 합격



한 의학과 이지나 학생(07학번)이 제68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지나 학생은 420점 만점에 390점을 받았다. 이번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916명이 응시해 869명이 합격했다. 재학 4년 내내 학년 수석을 차지한 이지나 학생은 2월 졸업 후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인턴과정을 밟는다.

## 수플러, '제1회 소프트웨어 동아리 챔피언십' 대상

경희대 수리 프로그래밍 동아리 수플러가 1월 9일 열린 '제1회 소프트웨어 동아리 챔피언십'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삼성SDS가 개최한 이날 대회에는 서류 전형 및 실사로 진행된 중간평가를 통과한 8개 대학교 12개 동아리가 참가했다. 프로그래밍·로봇·해킹 등과 관련한 주제발표 및 시연을 통해 기술성·창의성·완성도 등을 평가한 결과, 대상 1팀(경희대), 우수상 1팀(서강대), 장려상 2팀(서울대, 한양대)이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수플러는 5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삼성SDS 인턴 실습 기회, 채용우대 혜택을 제공받게 됐다.

## 김영아 학생, 제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쇼트트랙 금메달 획득

김영아(스포츠지도학과 11학번) 학생이 2월 18~21일 열린 제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빙상 쇼트트랙 여자대학부 3,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북 대표로 출전한 김영아 학생은 결승전에서 6분5초252를 기록했다.



### 후마니타스칼리지,

#### 제2회 교양교육 학술 심포지엄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지난 1월 18일 제2회 교양교육 학술 심포지엄 '교양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II'를 법학관 401호에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융합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을 주제로 인문학, 과학, 문화관광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의 융합교육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홍성욱 서울대 교수, 이진우 포스텍 석좌교수, 안옥모 경희대 교수, 윤석철 한양대 석좌교수가 차례로 발표를 맡았다. 도정일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은 "교양교육(liberal education)은 본질적으로 폭넓은 교육이고, 넓게 열린 교육을 위해서는 융합이 불가피하다"면서 "교양교육의 융합적 성격이 커리큘럼과 페다고지(pedagogy)에서 충분히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한국 교양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한의과대 학부모, 발전기금 기부

이동준(한의학과 08학번) 학생의 아버지 이인석 씨와 어머니 이봉순 씨가 한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캠퍼스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학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이봉순 씨는 "아들이 다니는 대학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며 "대학 발전기금이 십시일반 모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 기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인증' 획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 3년 만에 처음 실시된 전국로 스쿨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

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 운영체계의 효율성, 학사 관리의 엄정성, 실무 필수과목의 적절성과 충실성, 국제화 및 특성화, 도서관 및 학술정보 확보, 재정 조달의 적절성, 재정 분배의 적절성, 관련 학위과정 운영 등 8개 세부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25개 평가 대상 대학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 2012 몰래산타 페스티벌

2012 경희 몰래산타 페스티벌(이하 몰래산타)이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펼쳐졌다. 2007년부터 시작된 '몰래산타'는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과 미래명원이 주관하며,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나눔 행사로 진행된다. 지난 연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몰래산타'들은 서울 청량리역 앞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한 후 동대문구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선별한 다문화가정을 방문했다. 이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해 선물과 크리스마스 노래 등을 준비했다. 이날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95가구, 202명의 아동이 경희의 몰래산타와 인연을 맺었다.



### 제9차 합동교무위원회

2012학년도 제9차 합동교무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캠퍼스 공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인원 총장

과 서울·국제캠퍼스 교무위원 60여 명이 세계적인 대학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조인원 총장은 2013년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대학 발전과 학술 진흥의 '민주적 모체'인 자율운영"을 강조하고, "시행한 지 4년이 지난 자율운영 제도를 한 단계 더 창의적으로 발전 시키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준비된 기관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위기관 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교육·연구 분야에서 국내외 학계가 인정하는 탁월한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대학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위원들은 학술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소통'을 강조했다.

### GSC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1기 사회봉사기금 기부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 GSC)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1기 학생 32명이 1월 21일 GSC캄보디아기금을 기부했다. 지난해 1월 8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씨엠펜주 크라란군 크로치꺼면크 나쓰응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봉사단 1기 학생들은 2기 파견에 앞서 사회봉사기금 100만 원을 조성했다. GSC 박한규 사무총장도 학생들의 뜻에 동참해 100만 원을 기부, 총 200만 원의 기금이 마련됐다. 1기 학생들은 지난해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정기 모임을 갖고 당시 인연을 맺은 현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모아 기금을 마련했다.

### 정시모집 경쟁률 6.73대1

201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경희대학교는 2,490명 모집에 16,766명이 지원, 평균 6.7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마감된 원서 접수 결과, 서울캠퍼스는 1,216명 모집(가·나·다군)에 8,489명이 지원해 6.9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국제캠퍼스는 1,274명 모집(나·다군)에 8,277명이 원서를 접수해 6.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2학년도의 8대1보다 하락했지만, 서울대 4.76대1, 연세대 4.97대1, 고려대 3.94대1, 성균관대 5.88대1, 서강대 5.46대1에 비해서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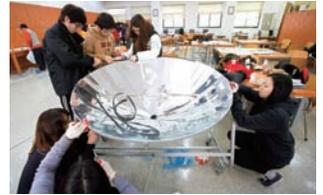
### 사회배려 대상 고등학생 미래설계 프로그램



경희대학교는 1월 24~25일 사회배려 대상 고등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미래설계 프로그램인 'Be the Vision Maker'를 개최했다. 2011년 시작해 3회째를 맞은 'Be the Vision Maker'는 사교육 및 비교과 활동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고등학생들에게 잠재력과 창의성 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1학년 학생을 포함해 17명의 재학생이 멘토로 참여해 자신들의 노력과 공부법을 들려주고 고교생들의 고민을 상담해줬다. 진로캠프 프로그램에서는 사전에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심리상담사가 맞춤형 학습법과 진로, 적성 등을 지도했다.

### GSC 적정기술 워크숍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GSC)은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국제캠퍼스에서 '적정기술 워크숍'을 진행했다. 적정기술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정치·문화·환경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로,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 22명은 적정기술 개념과 사례 교육, 에너지 관련 적정기술 강의를 통해 이론 지식을 쌓고 태양열 조리기 솔라쿠커(Solar Cooker), 자전거 발전기 등을 제작·실습했다. 워크숍에 앞서 구성된 GSC 적정기술 학생기획팀은 적정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지구적 사회공헌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뇌사 기증자 발굴 및 장기 기증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28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KOST)의 '인체조직 기증 의뢰 최우수기관'에도 선정됐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2010년 뇌사 판정자 관리 전문기관(HOPO)으로 지정됐으며, 2012년 전국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 평가에서 우수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GSC·강동경희대학교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GSC)이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함께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네오플러스봉사단은 캄보디아 씨엠립주 크라란군 크로치꺼면 크나쓰응마을(주민 1,220명) 보건소와 크나사원초등학교에 진료소를 설치하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진료와 함께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배탈, 설사, 호흡기질환, 고혈압, 관절염 등을 호소하는 9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진료소를 찾았다. 봉사단장 배종우 교수(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12명의 의료진은 총 1,855건의 진료를 실시했다.

**교육역량 강화사업  
학생역량 부문 최우수 선정**

경희대학교가 2012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우수사례 선정 결과, 학생역량 부문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월 18일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학생역량, 취업역량, 교육인프라 부문에 대해 우수사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세 부문에서 유일하게 학생역량 부문만 최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경희대는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심화 'Arete' 프로그램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리스어로 탁월성(Excellence)을 의미하는 'Arete'는 학생들의 자생적 스테디그룹으로, 학생들이 직접 운영위원이 돼 중핵교과 스테디그룹, 독서토론, 시사토론 모임 등을 진행한다.

**경희·씨티그룹  
NGO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공공대학원은 2006년부터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21세기 시민사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12년 12월 24일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8주 동안 한국씨티은행 후원으로 진행된 제7기 NGO 인턴십 프로그램에서는 전국 대학(원)생 100명이 전국 73개 NGO에 파견돼 다양한 현장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인턴십에 선발된 학생들은 NGO의 역할과 기능, NGO

단체 업무 현황에 대한 교육과정이 포함된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NGO 활동과 운영을 배우며 다양한 사회참여를 경험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동영상 강의 무료 공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이 2월, 네이버 TV캐스트 내 교양 채널을 통해 무료로 공개됐다. 이번 서비스 제공은 1월 14일, 경희사이버대학교와 네이버 운영회사 NHN이 동영상 공개 강좌 제공에 대한 콘텐츠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2013학년도 롯데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이 2월 21일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교육실에서 열렸다. 성적과 경제 여건 등 기준에 따라 재학생 20명이 롯데장학재단 '롯데희망장학생'에 선정됐다. 학생들은 4

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롯데쇼핑 백화점 상품본부 전무인 강희태(영어영문학과 80학번) 동문이 참석해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경희의료원·경희사이버대,  
캄보디아 의료봉사**

경희의료원이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함께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의료원 한마음봉사단은 캄보디아 씨엠립주 푹틀라초등학교에 진료소를 설치하고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한방 진료를 실시했다. 봉사단장 최우석 교수(영상의학과)를 비롯한 10명의 의료진은 지역주민 550여 명을 대상으로 당뇨, 염증성질환, 영양결핍, 기생충 감염 등의 질환을 진료했다. 한마음봉사단과 경희사이버대 경희희망클럽은 의료봉사뿐 아니라 국제봉사단체 라이온스클럽이 추진 중인 '우물 기부 프로그램'에도 동참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Magnolia Story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대외협력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소액모금 캠페인으로, 경희사랑의 마음을 모아 서로 돕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다.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교내에 확산시키고, 대학의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은 크게 장학기금과 사회봉사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장학기금은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기금으로, 사회봉사기금은 경희사회봉사기금과 경희의료봉사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을 통해 동문들은 자신이 졸업한 학과나 대학을 지탱해 배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은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를 격려하고 선후배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배는 '훗날 선배가 되었을 때 미래의 후배를 돕겠다'는 마음의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문화의 전통이 이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회봉사기금은 환경보호, 기아문제 해결, 난민 지원 등 지구적 사회공헌

을 실천하는 경희의 각종 해외봉사, 경희지구사회봉사단 활동, 난치병 해소와 무의촌 진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 지원 등에 사용된다.

**참여 인원과 방법 및 기금 조성액 현황(2013년 2월 20일 현재)**

2010년 10월 말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시작된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교직원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발족 2주 만에 1억 8,000여 만 원을 돌파했고, 2013년 2월 현재 23억여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조성 금액 : 2,370,158,606원
- 참여 인원 : 2,213명
- 참여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magnolia.khu.ac.kr>)에서 쉽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대외협력처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
- 문의 :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02-963-4874~6)



###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제 14호

지난 2월 18일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1주기를 맞아 경희 구성원은 고인의 삶을 회고하고, 학술과 평화의 '문화세계 창조'의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영식 박사는 교육·연구·실천이 창조적으로 결합된 경희학풍을 확립했습니다. 21세기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호 뉴스레터는 조영식 박사의 교육철학과 평화사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개최한 '1주기 기념 원탁회의', 그리고 '개교 100주년에 보내는 메시지' 중심으로 특집을 꾸렸습니다.

지난해 경희는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 수립과 함께, 교육·연구·탁월성을 성취하기 위한 '학술진흥 2020'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학계가 주목하는 연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교육·연구·실천 부문에서 경희가 이룩한 성과를 뉴스레터에 담았습니다. 2013학년도 신입생 환영행사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인문학의 혁신을 가져왔다는 소식도 전합니다.

제14호 2013년 2월 28일 발행 발행인 조인원 편집·발행 출판문화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 02-961-0106~8 이메일 khds3080@khu.ac.kr 홈페이지 www.khu.ac.kr